

SUNHAK PEACE PRIZE



The Sunhak Peace Prize Committee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Making the World Better for Future Generations



선학평화상

SUNHAK PEACE PRIZE

THE SUNHAK PEACE PRIZE FOUNDATION

선학평화상의 설립자인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평화 비전을 중심 삼고, 인류의 삶과 내면을 평화롭게 재구성할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종교를 중심 삼고 정치·경제·교육·언론·예술·가정·여성·청년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분야에서 평화로운 삶의 양식을 제시하며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왔습니다.

설립자



문선명·한학자 총재

종교를 넘어

“종교란 평화로운 이상세계를 찾아가는 커다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드넓은 평화 세계에 닿기까지 길게 흐르며 수많은 냇강을 만납니다. 강줄기에 합해진 냇강들은 그때부터는 냇강이 아니라 큰 강물입니다.”

화합 설립자는 종교 간 갈등이 인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1968년 ‘세계종교 협의회’ 창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초교파·초종교 조직을 결성해 종교화합 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설립자는 유엔이 참다운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을 지닌 초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엔을 초종교적인 대표로 구성된 ‘상원’과 각국 정치 외교 대표로 구성된 ‘하원’ 체제로 전환하자는 유엔 갱신 안을 제안하였다.

이해 설립자는 1991년 저명한 종교학자와 신학자들을 모아 ‘세계경전’(총 1,078쪽 2권, 1991년 영문, 1994년 국문·일문)을 출간했다. 세계경전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를 비롯한 세계 주요 종교 경전의 어휘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담고 있으며, 종교 경전의 73%가 우주의 근본을 찾고 창조주의 뜻을 헤아려 평화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공통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밝혔다.

국경을 넘어

“수천 년 인류의 역사는 세계를 쪼개고 또 쪼개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종교가 변하고 권력이 변할 때마다 국경이 나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는 국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결 설립자는 인류의 화합을 막는 모든 경계가 인간의 타락에서 기인한 악의 결과로 보고,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인류사 최대의 범국가·문명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전 세계를 잇는 국제 평화 고속 도로(1981년)와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85km의 베링해협 해저터널(2005년)을 제안했으며, 한국-일본의 해저 209-231km를 잇는 터널 건설을 위하여 시추를 시작했다.

초이념 설립자는 신과 종교를 부정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철저히 반대하였고, 냉전 대결이 치열하던 19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여 국제적 반공 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 공산주의의 수장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하여 공산주의의 해체를 이끌었으며, 1991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평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교류를 확대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혜 설립자는 일찍부터 빈곤, 기후 변화, 불평등 등 단일 국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나왔다. 특히 천주평화연합(UPF, 유엔경제이사회 포괄적 협의 지위 단체, 185개국에 120만 명의 평화 대사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리더십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전 세계의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류 한 가족 공동체로

“인류는 전부 가족입니다. 참사랑으로 관계된 하나의 가족입니다. 인류는 한 나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 가족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기도 있고,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가정 설립자는 남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 생명을 창조하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가는 성스러운 길이라고 여겼으며, 이를 ‘축복’이라 명명했다. 축복식은 1960년 한국에서 거행된 것을 시작으로 60년간 전 세계에서 4억 쌍 이상이 동참했다.

여성 설립자는 앞으로의 세계는 여성의 모성적 사랑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선견으로 1992년 세계평화여성연합(유엔 경제이사회 포괄적 협의 지위 단체, 119개국 네트워크 구축)을 설립하여 여성 지위 향상, 글로벌 여성 피스 네트워크,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들을 펼쳐 나오고 있다.

문화 설립자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전 인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에 열정을 쏟았다. 한국 최고의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과 한국의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어린이 예술단인 리틀엔젤스, 전 세계 체육인과 청년들이 스포츠를 겨루는 세계 문화 체육대전, 대륙 간 대표 프로 축구팀의 리그인 피스컵 국제축구대회 등을 운영하여 국경을 초월한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했다.

시상 개요

시상주기	격년 시상
시상분야	평화
수여품목	상금, 메달 및 상패

추천 및 심사 과정

후보자 자격 요건

- 선학평화상의 평화의 가치를 구체화한 활동에 현격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 복수의 국가, 인종, 종교, 이념에 걸쳐 평화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개인 또는 단체

추천

선학평화상 추천위원은 전 세계 1,000여 명으로 구성되며, 후보자 추천은 다음에 해당하는 추천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개인** 국제적 상의 수상자, 각국 저명인사
- 단체** 국제 NGO 단체 및 학술단체, 국제적 상 수상 단체

심사

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소심사회의, 전체 심사 회의를 통하여 추천된 각 후보자에 대한 활동 내용 및 공적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 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를 합니다.

수상자 결정 및 발표

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사회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여 국제적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합니다.

선학평화상의 평화 비전과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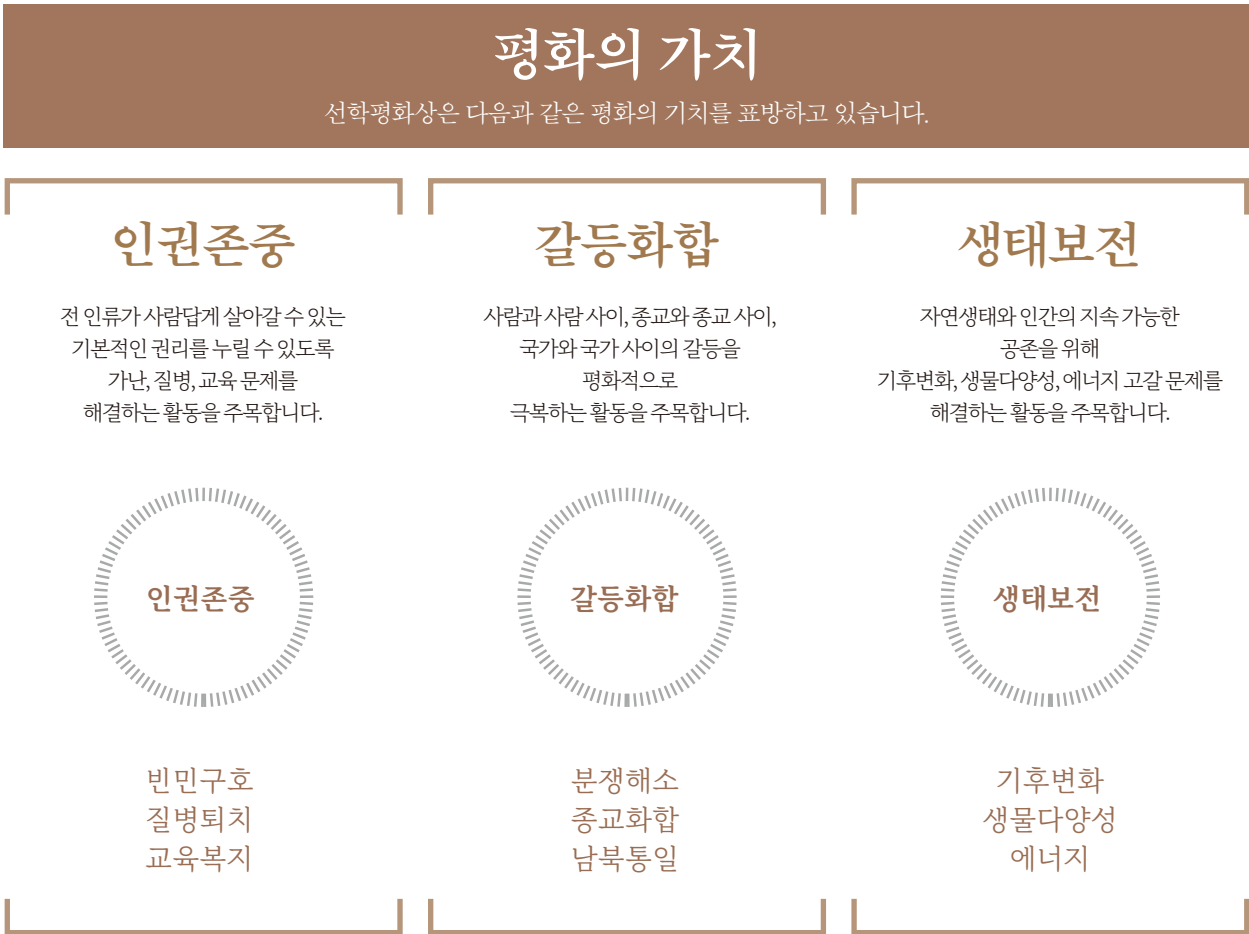
평화 비전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

미래세대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지향하는 선학평화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통과 갈등 및 파괴적 현상을 치유하고, 평화에 대한 복합적인 미래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전 세계적인 상호 연관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구체적인 시공간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평화적 조건을 치유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학평화상은 ‘인류 한 가족’ 평화 사상을 기반으로 경쟁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공존, 소통에 기반한 미래 평화 비전을 지향합니다.

선학평화상은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일깨우고, 평화를 해치는 모든 갈등을 사랑으로 화합하며, 인간과 생태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현격한 기여를 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됩니다.





공동위원장

호세 마누엘 바로소

José Manuel Barroso

출생

1956. 3. 23 포르투갈 리스본

학력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경제학, 사회학 석사

현직 및 경력

- 現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
- 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 前 포르투갈 총리
- 前 포르투갈 국회 외교위원장
- 前 포르투갈 외무장관

수상경력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노벨 평화상 수상

공동위원장

토마스 월시

Thomas G. Walsh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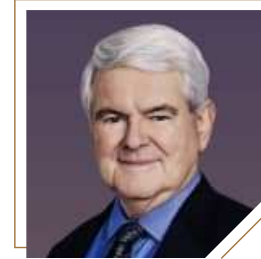
1949. 11. 8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학력

밴더빌트 대학교 종교대학원 문학석사 및 철학박사

현직 및 경력

- 現 신앙 기반 조직 연합 공동 의장
- 現 HJ 국제 평화대학원 총장
- 現 국제평화리더십저널 집행편집장
- 前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 前 세계평화도로재단 이사장



뉴트 깅그리치 Newt Gingrich

- 前 미국 회원의장
- 前 하원 공화당 부대표
- 前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



댄 버튼 Dan Burton

- 現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공동 의장
- 前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 前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
- 前 미국 인디애나주 하원의원



토마스 P. 맥데빗 Thomas P. McDevitt

- 現 워싱턴 타임즈 이사장
- 現 HJ Magnolia US 홀딩스 회장
- 現 세계평화경제인연합(IMAP)
- 現 세계평화경제인연합(IAED) 글로벌 코디네이터



문연아 Yeon Ah Moon

- 現 선학학원 이사장
- 現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
- 前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 前 천주평화연합(UPF) 한국의장
- 前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



양창식 Charles S. Yang

- 現 세계평화연합(UPF) 세계의장
- 現 선학평화상재단 이사장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일시
2015년 8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대한민국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1회 선학평화상 선정 경과

제1회 시상 방향

제1회 선학평화상의 시상 테마는 ‘인류의 미래 평화는 바다’입니다. 선학평화상은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인류 한 가족’이라는 평화 비전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양위분은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고(故) 문선명 총재는 일찍이 1960년대부터 미래 인류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할 문제로 지구 환경문제와 식량문제를 예견하고, 그 강력한 해법으로 ‘바다’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설립자 양위분의 혜안을 토대로 하여 제1회 선학평화상의 시상 테마로 ‘바다’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 접수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시상 테마를 토대로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66개국의 182명의 후보자가 접수 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

이후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2015년 3월까지 후보자 적격성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철저한 자료조사와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으며, 최종 후보자의 업적 검증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수차례의 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키리바시의 아노테 통 대통령과 인도의 모다두구 굽타 박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8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프레스 클럽에서 제1회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아노테 통

키리바시공화국 전 대통령

1952. 6. 11. 키리바시 라인제도 출생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경제학 석사

주요경력

1978-1980 남태평양경제협력기구(SPEC)
프로젝트 책임자

1983-1992 아틀연구재단(USP) 소장

1994-1996 키리바시공화국 자연자원개발부 장관

1996-2003 키리바시공화국 국회의원

2003-2007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당선

2007-2011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재선

2012-2016 키리바시공화국 대통령 3선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만드는 글로벌 리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

아노테 통(Anote Tong) 전 키리바시 대통령은 세계가 직면한 막대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며 전 지구적인 해결책 모색을 주도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평균 해면보다 낮은 고도를 가지고 있는 환태평양 군소도서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포괄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는 데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키리바시공화국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33개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811km² 면적에 인구는 10만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소국이며, 평균 해발 고도가 낮은 탓에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이면 전 국토가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희생적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에 앞장

아노테 통 전 대통령은 환태평양 지역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의 보고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해양 보호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2006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히 보존된 산호수역인 피닉스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보존협회(CI)에서 ‘피닉스제도 보호구역(PIPA)’을 설정해 발표했다. 2010년 피닉스 제도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인류의 소중한 보물이다. 나아가 그는 태평양 23개국 도서 국가의 협력체인 ‘태평양해양경관 관리협의회’ 구성을 주도하며 태평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해양경관의 면적은 세계 해양표면의 10%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약 4,000만km²)으로, 인류와 지구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건강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국 연안을 어획과 채굴이 완전 금지되는 ‘완전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국가적 희생을 감내하며 해양생태계 보호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원양어선의 입어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키리바시로서는 국가적 이익을 포기하는 도덕적 결단이다.

기후난민의 존엄한 인권 확보를 위해 노력

아노테 통 전 대통령은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자국민의 인권 수호에 총력을 기울이며, 기후난민의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환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30년 이내에 수몰 위기에 처한 자국민들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이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피지의 토지 2,428만여m²를 매입하는 등 이주지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나아가 자국민들이 불안한 지위의 ‘난민’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이주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존엄한 이주(Migration With Dignity)’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이는 간호사, 선원, 원예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직업훈련과 어학교육 프로그램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존엄한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통 전 대통령의 뜨거운 인류애가 반영된 것이다.

모다두구 비제이 곱타

인도 양식 과학자

1939. 8. 17. 인도 출생

인도 캘커타 대학 생물학 박사

주요경력

1971-1977 인도 농업연구위원회(ICAR) 과학자

1977-1981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라오스 메콩
사무국 어류 사육 전문가

1981-1985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태국 메콩
사무국 수석 양식 과학자

1986-1989 UN-FAO 방글라데시 어류 양식 전문가

1989-1996 월드피시센터 수석 양식 전문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2003-2004 월드피시센터 국제관계 및 파트너십
담당 사무총장보

2005-현재 국제기구 양식 프로젝트 자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
미국 국제개발처 등)



미래 식량위기의 대안,
청색혁명의 선구자

혁신적 양식 기술 개발로 미래 식량위기의 해법 제시

생물학 박사인 모다두구 곱타(Modadugu V. Gupta)는 인류의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다에 있다고 보고, 어종 개량을 통해 획기적으로 물고기 생산량을 늘린 ‘청색혁명’의 설계자다. 곱타 박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동물성 단백질 공급이 가능한 물고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양식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미래 식량위기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세계 최극빈국인 방글라데시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 말부터 탁하고 얇은 물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틸라피아’, ‘실버 바브’ 등의 어종을 개량하였다. 그 결과, 연구 초기인 1986년에는 17만 톤에 불과했던 방글라데시 어류 생산량이 2005년도에는 85만 톤으로 4배나 급증하는 등 혁명을 일구어냈다. 2000년부터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기아의 최전선인 아프리카 지역에 맞는 양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교육, 자립의 기적을 일궈냄

곱타 박사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교육하여 자립·자활의 기적을 일구어 낸 동남아시아 빈민들의 성자(聖者)다. 곱타 박사는 동남아시아 빈민의 기아 및 영양실조 해결을 위해 빈민층과 함께 생활하며 헌신적으로 양식 기술을 보급하였다. 땅이 없는 가난한 농부 5-10명으로 구성된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양식 기술을 교육하였으며, 양식에 필요한 초기비용과 양식장을 무상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던 극빈층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나아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다.

아시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을 크게 향상시킴

곱타 박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양식 기술을 보급하여 아시아 빈곤 가정들의 가계소득 증가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인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각 지역의 종교지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한편, 가난한 농가 여성들에게 자활 동기를 고취하고 양식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였다. 또한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과 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곱타 박사의 노력으로 현재 방글라데시 어류 양식업 종사자의 60%가 여성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여성의 인권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제2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일시
2017년 2월 3일

장소
대한민국 서울,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

제2회 선학평화상 선정 경과

제2회 시상 방향

제2회 선학평화상은 ‘글로벌 난민위기’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난민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사회는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난민위기 해결을 위해 초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립자는 세계 평화의 해법으로 종교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인류애를 강조하며 일찌감치 ‘국경철폐’ 운동을 주창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세계적 위기와 설립자의 평화 비전을 아울러 ‘글로벌 난민위기’를 제2회 시상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후보자 접수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76개국의 225건의 후보자가 접수 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심사회의를 통해 추천된 각 후보자에 대한 활동 내용 및 공적사항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최종 심사회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이탈리아의 외과의사인 지노 스트라다 박사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교육가 사키나 야쿠비 박사를 제2회 선학평화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회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지노 스트라다

이탈리아 의사

1948. 4. 21. 이탈리아 밀라노 출생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주요경력

- 1978-1984 이탈리아 밀라노, 밀라노 대학
응급수술기관 외과의사
- 1981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Groote Schuur 병원 방문 외과의사
- 1989-1992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병원 외과의사
(파키스탄, 이디오피아, 태국, 아프가니스탄)
- 1993 소말리아, 베르베르 병원 수석 외과의사
- 1994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코소보 병원 외과의사
- 1994-2007 이머전시(Emergency) 병원 수석 외과의사
(르완다,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 2007-현재 수단 살람심장외과 센터 외과의사



난민 및 전쟁 희생자들의
‘치료받을 권리’ 지켜낸 영웅

아프리카·중동 분쟁의 최전선에서 긴급 의료구호 활동을 펼치다

지노 스트라다(Gino Strada)는 이탈리아 외과의사로 28년간 전 세계 분쟁지역에 뛰어들어 생명이 위태로운 난민, 전쟁 희생자, 빈민들에게 긴급 의료구호를 펼치고 있는 인도주의자다. 그는 1989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참전 의사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전쟁 희생자 및 극빈곤층에게 고품질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국제 긴급의료 단체인 ‘이머전시(Emergency)’를 설립하였다. 이머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의료 여건이 취약한 17개국에서 60개가 넘는 병원, 외과센터, 재활센터, 소아과 진료소, 응급처치소, 보건센터, 모성센터 및 심장수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백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렸다.

‘치료받을 권리’ 보장으로 존엄한 인권 수호에 앞장서다

지노 스트라다는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인권인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고품질 치료를 제공하며 평화, 연대, 인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8년 세계 최극빈국인 아프리카 11국(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남수단, 우간다) 정부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머전시의 ‘의료에 기반한 인권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반전’ 및 ‘대인지뢰 생산 금지’ 캠페인으로 평화 문화를 주도하다

지노 스트라다는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강제와 폭력의 근원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악한 행위로 지구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도덕적·정치적 입장으로 반전운동을 펼치고 있다.

수십 년간 분쟁지에서 지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와 인간의 불행을 직접 목도한 지노 스트라다는 1997년 이탈리아의 대인지뢰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열성적으로 실시하여 1998년에 달성했다.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탈리아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에 이탈리아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 국제사회에 반전 의식을 일깨웠다.

사키나 야쿠비

아프가니스탄 교육가

1950년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출생
미국 로마린다 대학 공중 보건학 석사

주요경력

1982- 현재 '국제희망창조(CHI: Creating Hope International)' 단체 설립 (미국 미시간주)
1982-1991 보건 컨설턴트
1989-1992 디터 대학교 교사 (미국 미시간주)
1992-1995 국제구호위원회(IRC) 소속으로 파키스탄 난민촌에서 여성 교육 및 교사 교육 담당
1995- 현재 아프간학습연구소(AIL) 설립 및 대표
2007-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과 헤라트에 사립학교 4개 설립 (유치원-12학년까지)
개인병원과 진료소 설립, 라디오 방송국 Meraj 94.1FM 설립



난민 재정착의 근본 해법을 제시한
난민 교육의 어머니

아프가니스탄 ‘난민 교육’에 평생을 헌신하다

‘아프가니스탄 교육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키나 야쿠비(Sakina Yacobi)는 전쟁과 점령의 극악한 조건에서도 사회 재건을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이라는 신념으로 지난 21년간 선구적이고 헌신적으로 난민 교육을 해왔다.

사키나 야쿠비는 수십년간의 전쟁으로 교육 및 보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아프간 난민촌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소년·소녀 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1995년 체계적인 난민 교육을 위해 아프간학습연구소(AIL)를 설립하여 여성과 어린이 1,300만 명에게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했으며, 탈레반 정권의 여성 학교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80여개의 비밀학교를 운영하여 3,000명의 소녀들을 교육했다.

‘전체론적 접근법’으로 난민 재정착의 해법 제시하다

사키나 야쿠비가 설립한 ‘아프간학습연구소(AIL)’는 민간차원에서 4개의 사립학교, 병원,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며 ‘전체론적 접근법’을 실현하고 있다. 1996년 이래 200만 명이 넘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보건 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난민촌의 영아사망률과 출산 중 산모사망률을 현격히 줄였다. 또한 ‘사랑과 용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박탈감과 분노에 싸여있던 난민들을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긍정적인 리더로 변화시켰다. 하루 100만 명에게 도달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회 동향, 건강, 가정의 성공 모델, 인권, 문학, 음악 등의 생활 전반을 다루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난민들의 갈망을 해소시키고 있다.

이슬람 여성의 인권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다

사키나 야쿠비는 “소녀를 교육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슬람 여성 교육에 매진하여 여성들의 인권을 크게 향상시켰다. 여성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이슬람 문화와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아프간은 15세 이상 여성 중 단지 12.6%만이 읽고 쓸 수 있는 세계 최저 수준의 문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키나 야쿠비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 남성 지도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여성 교육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갔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여성대학까지 설립하게 되었다.

제3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일시
2019년 2월 9일

장소
대한민국 서울,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

제3회 선학평화상 선정 경과

제3회 시상 방향

선학평화상은 인류의 미래 평화를 위한 제3회 시상 방향으로 ‘아프리카의 인권과 개발’에 주목했습니다. 현 인류는 지금 거침없이 심화되는 글로벌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 지구가 평화와 공생·공영의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지구촌에서 가장 소외된 아프리카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억압된 인권과 개발 문제는 전 인류의 양심에 새겨진 상처이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이 풀어야 할 공동과제입니다. 특히 선학평화상의 설립자는 세계 평화의 해법으로 종교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인류애를 강조하며 일찌감치 ‘하나님 아래 전 인류 한 가족’ 평화 비전을 제시하며 평화운동을 벌여 나왔습니다. 우리 인류는 높은 인권감수성과 함께 선한 지혜로 아프리카에 변화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 접수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40개국의 111건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심사회의를 통해 추천된 각 후보자의 활동 내용 및 공적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최종 심사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여성 할레 철페 인권운동가인 와리스 디리와 아프리카 굿거버넌스와 농업혁신의 리더인 아킨우미 아데시나 박사를 제3회 선학평화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2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회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아킨우미 아요데지 아데시나

아킨우미 아요데지 아데시나
농업경제학자,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1960. 2. 6. 나이지리아 이바단 출생
미국 퍼듀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주요경력

1988	록펠러 재단 농업 수석 연구원
1990-1995	아프리카 쌀 개발 협회 수석 경제학자 및 코디네이터
1999-2003	록펠러 재단 남부 아프리카 대표
2003-2008	록펠러 재단 식량안보 부국장
2008-2011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동맹 부대표
2008-2010	아프리카 농업경제학자 협회 회장
2011-2015	나이지리아 농업 및 농촌 개발 장관
2015-현재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



농업혁신과 굿거버넌스로
아프리카 발전 촉진

아프리카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 아프리카 식량안보 개선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yodeji Adesina) 박사는 아프리카가 21세기에 만성적 빈곤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혁신해야 한다는 비전으로 30년간 아프리카 농업 혁신을 이끌어 대륙 전역 수억 명의 식량안보를 개선했다. 아데시나 박사는 “농업은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다각화를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가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다.”라고 외치며 굵직한 ‘농업’ 정책을 주도해왔다.

아데시나 박사는 1990년부터 서아프리카쌀개발협회(WARDA)에서 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하며 우수한 종자와 농법을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농업-판매 이니셔티브(The agro-dealers initiative)’ 모델을 고안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전파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을 가게 주인들이 농부에게 개량된 종자를 팔고 비료 및 선진 농법을 전수하도록 돕는 것으로, 각국 정부는 물론 NGO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농업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2015년 아데시나 박사는 “가장 큰 인프라 구축은 도로나 철도, 항구가 아니라, 영양 보급을 통한 두뇌의 성장이다.”라고 강조하며 빌 게이츠(Bill Gates), 가나의 전 대통령인 존 쿠퍼, 나이지리아 최대 갑부 알리코 단고테(Aliko Dangote) 등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영양을 위한 아프리카 지도자 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농업을 통한 영양실조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굿거버넌스로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발전을 촉진

아킨우미 아데시나 박사는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록펠러 재단의 식량안보 부국장, 아프리카 녹색혁명 연합(AGRA)의 부대표, 나이지리아 농림부 장관,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수장직을 수행하며 평생 아프리카의 개발에 앞장서 왔다. 아데시나 박사는 △쌀 생산량 증대 기술 도입 △농부들이 규모에 맞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수립 및 실행 △소규모 농가의 대출 보장 △공공과 민간의 농업 투자 증대 △비료산업 부패 척결 등 ‘농업’을 핵심으로 아프리카의 포괄적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2015년 아프리카개발은행 총재로 취임한 후에는 ‘전력 등 인프라 확충’, ‘식량 공급’, ‘산업화’, ‘역내 통합’, ‘삶의 질 향상’ 등 5개 주력 목표를 설정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440만 명이 전기에 접근하게 되었고, 850만 명이 농업 분야에서 혜택을 받았으며, 1,400만 명이 교통 분야에서 혜택을 보았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가 ‘빈곤의 대륙’에서 ‘기회의 대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방식을 ‘원조’에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그는 전기에 접근할 수 없는 6억 4,500만 명을 위해 10년 이내에 전력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50년이면 아프리카 청년 인구가 약 8억 4천만 명에 도달하는 상황에 대비해 10년 이내에 2,5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능동적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와리스 디리

여성 할례 철폐 인권운동가, 슈퍼모델
1965년 소말리아 출생

주요경력

1987	영화 '007 리빙데이라이트'의 본드걸
1997	책 '사막의 꽃' 출간 (65개국어 출판, 총 1,300만부 판매)
1997-2003	할례 근절을 위한 유엔 인권홍보대사
2002	사막의 꽃 재단 설립
2009	영화 '사막의 꽃' 발표



여성 할례 문제를
전 세계에 공론화한 인권운동가

폭력적 여성 할례를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부각하여 할례 철폐 선도

와리스 디리(Waris Dirie)는 여성 할례 철폐를 위해 투쟁한 가장 중요한 인권운동가다. 그녀는 여성 할례(FGM: Female Genital Mutilation)의 폭력성을 전 세계에 공론화한 첫 인물로서 할례 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아젠다로 부각시키며 할례 근절을 선도했다.

소말리아 유목민의 딸로 태어나 5세 때 할례를 당한 와리스 디리는 세계적인 슈퍼모델로서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던 1997년 고통의 소리를 낼 길 없는 수억 명의 아프리카 여성들을 대표하여 할례를 고백했다. 이후 그녀는 인권운동가로 변신하여, 그녀는 1997년 유엔의 첫 '할례 근절을 위한 인권홍보대사'로 임명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아프리카 여성을 대변하며 할례 철폐 캠페인을 벌였다.

그녀의 용기와 노력으로 2003년 아프리카연합 소속 15개 국가는 여성 할례 금지를 명시한 마푸토 의정서(Maputo Protocol)를 비준했으며, 2012년 유엔 총회는 여성 할례를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30년까지 여성 할례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폭력적 할례 위기에 놓인 수억 명의 소녀들을 구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할례 재건 수술로 몸과 마음이 찢긴 여성들을 치유

와리스 디리는 잔인한 성기 훼손으로 몸과 마음이 찢긴 여성들을 치유하고 재활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녀는 2013년 120명의 의료진과 파리, 베를린, 스톡홀름 및 암스테르담에 '사막의 꽃 센터'를 설립하여 할례 피해 여성들을 치료해왔다. 성기 재건 수술과 심리치료,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할례 피해 여성들에게 새 삶을 찾아주고 있다.

와리스 디리는 최대한 많은 의사가 할례 복원 수술을 할 수 있게 하도록 시민사회 단체 및 학술 기관 등에 재건 수술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외과 의사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여성 성기 재건 수술법을 교육하는 '사막의 꽃 외과 센터'를 설립하였다. 지금까지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 독일, 이탈리아, 모로코, 시에라리온 및 영국 출신의 의료진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각국으로 돌아가 할례 여성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교육과 경제적 자립으로 여성 할례 근절의 근본적 솔루션 제시

아프리카 여성 할례는 종교나 문화 때문이 아니라 딸을 비싼 값에 시집보내기 위한 부모의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와리스 디리는 할례 철폐의 근본 솔루션으로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기초 문식성 교육'과, '직업 교육'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각지에서 소녀 교육기관과 여성 직업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여아들의 문식성 향상을 위해 시에라리온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에티오피아와 케냐에서는 스카프를 생산하는 공정거래회사를 운영하여 여성들의 자립자활력과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다.

제4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일시
2020년 2월 5일

장소
대한민국 경기, 킨텍스 제1전시장

제4회 선학평화상 선정 경과

설립자 탄생 100주년 기념 2020 특별 시상

2020년 시상은 특별히 설립자인 문선명 총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자의 평화 비전인 공생(共生), 공영(共榮), 공의(共義)에 주목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는 모든 국가가 더불어 잘사는 평화공동체를 이룰 때라야 달성될 수 있습니다. 설립자는 일생 동안 전 인류가 한 가족으로 화합하는 세계평화공동체를 지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기주의와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려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 이기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후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었던 협력적 국제주의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과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계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종교와 국경, 인종을 뛰어넘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만 합니다.

후보자 접수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46개국의 86건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심사회의를 통해 추천된 각 후보자의 활동 내용 및 공적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최종 심사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세네갈의 대통령인 마키 살과 전 루터교 세계연맹 의장인 무넵 A. 유난 주교를 제4회 선학평화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립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설립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5일 일본 나고야에서 제4회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마키 살

세네갈 제4대 대통령

1961. 12. 11. 세네갈 출생

세네갈 Cheikh Anta Diop 대학교 지질 공학 및
지구물리학 학사

프랑스 국립 석유엔진 전문대학 졸업(ENSPM)

주요경력

2002	광업·에너지·물·장비 및 운송부 장관
2001-2003	광물에너지부 장관
2004-2007	세네갈 국무총리
2007-2008	세네갈 국회의장
2013	아프리카연합(AU) 개발기구 'NEPAD'의 국가 및 정부 지도자 오리엔테이션위원회의 위원장
2015-2016	ECOWAS 국가공무원단장
2012-현재	세네갈 제4대 대통령 (2019년 4월 재선)



아프리카 굿거버넌스의 모델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개혁으로 굿거버넌스 실현

2012년 4월 세네갈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한 마키 살 대통령은 현행 헌법 아래 7년으로 예정된 자신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이는 등 파격적인 개혁으로 아프리카의 굿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장기 집권이 만연한 아프리카에서 매우 파격적인 개혁으로, 세네갈에서는 2016년 3월 20일 ‘대통령 임기 및 국정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투표’가 시행 되어 63% 득표로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살 대통령은 세네갈 민주주의의 현대화와 안정화를 위해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공공 업무의 지배 구조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15 개 개혁 조치>를 발효하였으며, ‘국가부패방지청’과 ‘불법 자산 취득 및 부실 이득 복구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여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굿거버넌스를 향한 그의 굳건한 의지와 실천은 서아프리카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서아프리카 경제 부흥에 기여

마키 살 대통령은 민생 안정 및 경제 부흥을 국가 경영의 최우선으로 삼고 2035년 신흥 경제국 도약을 목표로 ‘세네갈 부상 계획(Plan Senegal Emergent, 1기: 2014-18년, 2기: 2019-23년)’을 추진하여 경제성장률을 6%대로 안정시켰다. 퇴직 연금 인상, 농민 긴급 보조금 지급, 다양한 교육 관련 국가회의 개최, 의료 보험 개혁 등 살 대통령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은 서아프리카 경제 선진화의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AU)의 개발기구 ‘NEPAD’의 국가 및 정부지도자 오리엔테이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도로, 다리, 고속 도로, TER(지역 급행열 차), 항공사 Air Senegal SA, Ségambie 다리 등을 건설하여 아프리카 교통인프라를 크게 개선시켰다.

아프리카 대륙의 화합 촉진

마키 살 대통령은 대륙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이슬람과 평화 국제회의’, ‘아프리카 서밋’, ‘아프리카 부상회의’ 등 국제적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프리카 리더들의 화합을 촉진하고 있다. 2015년 다카르에서 개최된 ‘이슬람과 평화 국제회의’에는 종교의 지도자 및 학자 500여 명이 참석하여 평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했으며, 2018년 다카르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서밋’에는 세계 60여 개국 정계 인사와 종교지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아프리카의 평화로운 미래를 논의했다.

무님 A. 유난

평화를위한종교 국제명예회장

1950. 9. 18. 예루살렘 출생

핀란드 Järvenpää 루터 신학교

핀란드 헬싱키대학 신학 석사

주요경력

1976-1979 예루살렘 요르단팔레스타인복음주의
루터교회(ELCJHL) 목사

1976-1997 요르단팔레스타인복음주의루터교회
기독교 교육 학교 교사 및 조정자

1990-1998 요르단팔레스타인복음주의루터교회
종교회의 회장

1998-2004 예루살렘-국제기독교위원회(ICC)
회장, 이사회

2004-2010 중동복음주의교회협의회(FMEEC)
펠로우십 의장

2010-2016 중동교회협의회(MECC) 회장

2010-2017 루터교세계연맹(LWF) 의장

2013-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
반자프로그램(EAPPI) 이니셔티브의
공동 설립자 겸 의장

40여 년간 중동지역에서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화합 촉진

무님 유난 주교는 전 세계를 향해 종교의 역할은 “성과 인종, 민족, 종교, 정파를 떠나서 모든 인간을 섬기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성서 해석의 다양성과 서로 다른 신앙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1950년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태어난 유난 주교는 평생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화해를 이끄는 일에 헌신했다. 특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동복음주의교회협의회 의장으로 봉사하며 중동에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하고 대화를 증진하며 중동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연합운동기관의 창설 멤버로 활동하며 이-팔 갈등의 해결에 앞장섰다. 유난 주교는 국제사회를 향해 예루살렘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등 세 종교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두 민족의 공동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예루살렘의 평화 정착을 선도했다.

더불어 그는 루터교의 핵심 교리 문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1530년)를 아랍어로 최초로 번역하여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의 이해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평화를 위한 목격자’ 등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서적을 다수 집필했다.

구교와 신교 간 갈등 화합에 기여

유난 주교는 뿌리 깊은 구교와 신교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가톨릭과 대화했다. 그 결실로 2013년 루터교세계연맹과 로마교황청은 ‘갈등에서 사립으로’라는 문서를 공동 채택하여 500년간 지속된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는 루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곧 공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일치와 세계화의 맥락에서 종교개혁을 새롭게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구교와 신교의 분열에 대해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다짐한 역사적 화해였다.

이에 기초해 루터교와 가톨릭은 2016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유난 의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황이 루터교 창립기념식에 참여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양측은 “신학적 구분은 편견과 갈등을 수반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라며 “종교의 이름으로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증오와 폭력을 거부한다”라고 밝혀 전 세계에 강한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다.

종교화합의 선구자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1944. 6. 13. 대한민국 출생
한국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석사

주요경력

1970	대한민국 외무부 입부
2004-2006	제33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2007-2016	제8대 유엔 사무총장
2017-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
2018-현재	엘더스 부의장
2018-현재	반기문세계시민센터 공동위원장
2018-현재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의장
2019-현재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2019-현재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인 조치, ‘파리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인 조치인 파리기후협정 타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5년 체결 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해 197개 국이 동참하는 역대급 기후협정으로, 금세기 안에 인간 이 만든 온실가스의 생산을 없애겠다는 포괄적인 장기 목표 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빈부를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국 가가 동참하는 이 역사적인 기후협정의 성사를 위해, 북극에서 남극까지 전 세계를 누비며 막후에서 세계 지도 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괄목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나아가 반 전 사무총장은 협정 발효 에 필요한 55개국에 대한 집중 로비를 통해, 파리협정 체결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발효를 성공시켰다. 미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 공로로 반 전 사무총장을 ‘2016 세계 주요 사상가 100인’에 선정했다.

인류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한 마스터플랜, 지속가능한발전(SDGs) 의제 제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인류 공동 번영의 미래를 이끌 마스터플랜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시켰다.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개 분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퇴치, 기 아 해소 등 유엔의 전통적 과제를 비롯해 21세기 들어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 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 인들을 동시에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다. 반 전 사무총장은 선 진국과 개도국 간 이분법적 구분을 벗어나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이 개발 의제의 채택 을 위해 각국 정상들의 참여와 공감대를 최대한 이끌어냈다.

양성평등 및 인권을 크게 증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류의 근본적인 인권을 진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 으며, 특히 여권 신장과 양성평등을 장려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2010년 유엔 산하의 여러 여성 관련 위원회와 조직을 통합하여 ‘유엔 여성기구(UN Women)’를 출범시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단결 캠페인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 ‘지금 강간 중지 (Stop Rape Now) 이니셔티브’, ‘남성 지도자의 네트워크 (Network of Men Leaders)’, ‘갈등 속 성폭력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등을 추진하여 여성 인권을 크게 증진시켰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리더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일시
2022년 2월 12 일
장소
대한민국 가평, HJ 글로벌아트센터

제5회 선학평화상 선정 경과

제5회 시상 방향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 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글로벌 감염병 대응 : 백신 평등’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 국가 통치방식, 글로벌 협업방식, 개인의 소통 방식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의 글로벌 기본 질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크게 후퇴하였으며, 민족주의의 부상, 글로벌 경제 쇼크, 불평등 심화 등 전 세계에 극심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19가 후퇴시킨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의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탄생될 수 있습니다. 인류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은 글로벌 리셋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이후에 출현할 또 다른 질병 X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 은 글로벌 감염병 위기의 최전선에서 백신을 공공재로 접근한 이 시대의 위인들에 주목하였습니다.

후보자 접수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로부터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40개국의 177 건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심사회의를 통해 추천된 각 후보자의 활동 내용 및 공적 사항을 검토하고, 평가지표를 통해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선학평화상 위원회는 최종 심사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자 중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 자 사라 길버트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평한 백신 분배를 리드한 세계백신면역연합을 제5회 선학 평화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설립자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캄보디아 왕국 총리 훈 센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7일 한국 가평에서 제5회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사라 길버트

옥스퍼드 대학 제너 연구소 교수
백시텍 생명공학 회사 공동 설립자

1962. 4. 영국 출생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헐 대학교 생화학 박사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명예 의학박사

주요경력

1986-1987 양조 산업 연구 재단 연구원

1987-1989 레스터대학교 '레스터 바이오 센터' 연구원

1989-1994 델타 생명공학사 연구원

1994-2010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의과대학분자생물학 선임연구원

1999-2010 옥스퍼드대학교 강사

2004-2010 옥스퍼드 대학교백신학부교수

2006-2010 옥스퍼드 대학교제너연구소리더

2007 웰컴 트러스트로부터 독감 백신 개발 프로젝트 보조금 수여: 인간 및 수의학 백신 개발에 대한 웰컴트러스트 전략상

2010-2021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 의과대학 제너 연구소 교수

2013-현재 아드리안 힐과 백시텍 설립, 전염병 및 암에 대한 백신 및 면역 요법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회사

백신을 인류의 공공재로 접근

저가(低價)로 25억 회 이상을 공급해져 개발국가 생명 구호에 지대한 기여

사라 길버트 옥스퍼드대 백신학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인류 공동의 문제로 여기고 백신을 공공재로 접근하였다. 그녀는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저가에 전 세계 유통 및 제조를 책임지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고 저렴한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022년 1월 현재까지 전 세계 182개국에 25억 회이상 공급되었으며, 특히 의료 여건이 취약한 저개발국가의 생명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지의 질병-X로부터 인류를 보호

신종 바이러스의 백신을 빠르게 설계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 개발

지난 25년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크리민콩고출혈열, 니파 바이러스, 라싸열 등 감염병 백신을 개발해 온 길버트 박사는 감염병 퇴치에 있어 '속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속하게 백신을 설계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을 개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수년 전부터 미지의 질병-X에 대비해 온 길버트 박사의 과학적 성취로 2020년 초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2주 만에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설계할 수 있었다.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자

세계백신 면역연합



주요연혁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젝트개발

2000.1. 설립, 스위스

2001-현재 73개국에서 5가 혼합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B형 헤모필루스)을 접종, 약5억 명 이상의 어린이 보호

2001-현재 14개국에서 5천 5백만 회 이상 황열병 예방 접종 실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예방

2007-현재 9천5백만 명 이상 어린이에게 2차 홍역 예방 접종

2008-현재 48개국의 1억 명의 어린이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

2009-현재 페럼구균 단백접합백신(PCV)개발, 1억8천3백만 명의 어린이 접종

2010-현재 아프리카 최적화 내수막 구균 백신 개발, 9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 접종

2013-현재 홍역과 풍진 예방 활동으로 2억7천5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 보호

2018-현재 세계 최초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개발

2020-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젝트 개발

글로벌 백신 불평등 상황에 직면하여 취약국의 백신 공급에 기여

세계백신면역연합은 부유한 나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백신 불평등 상황에 직면하여, 평등한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2020년 팬데믹 발발 직후 코로나 19 백신을 공동 구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저개발국가에도 공평하게 분배하는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신속하게 주도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세계보건기구(WHO)·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2022년 1월 현재까지 144개국에 10억 회 분의 백신을 공급하였다. 현재 코백스 공급 물량의 약 90%는 전액 적립금으로 저·중소득 국가에 제공되어 백신 불평등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 세계 아동 8억 이상 예방접종, 아동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기여

전 세계 7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취약국 아동의 백신 접근성을 높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는 세계 최대의 백신 국제협력 메커니즘이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전 세계 수많은 정부, 국제기구, 재단, 협회, NGO,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면역 증진 활동을 펴고 있으며,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8억 2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14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예방하였다. 특히 2000년 59%였던 DPT 예방접종을 20년 동안 81%로 증가시켜 73개 개발도상국 어린이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최빈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백신이 기존 5개에서 17개로 늘었다(펜타발렌트 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B형간염 등 5가지 질병 예방), 로타바이러스, 페럼구균, 콜레라, 발진티푸스, 홍역, 풍진, 소아마비백신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개 달성에 직접적 기여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중 14개 달성에 직접 기여하기 위해, 세계 최빈국 어린이 3억 명과 취약계층 11억 명을 예방접종하고 2200만 명의 미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공평한 백신 분배를 리드

훈센

캄보디아 왕국 총리

1951. 4. 4 캄보디아 출생
 캄보디아 고등 교육 기관 정치학 학사
 하노이 국립정치 아카데미 정치학 박사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미국 아이오와주 웨슬리언대학교 명예 법학 박사
 유럽 연합 아일랜드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중화인민공화국 광시대학교 명예 문학 박사

주요경력

- 1977 캄보디아 대량 학살 정권 해방 운동 리더
- 1978 캄푸치아 민족구국위한통일전선(UFNSK) 창립 멤버
- 1981-1991 외무장관
- 1985-현재 캄보디아총리
- 1993-1998 캄보디아 공동총리, 첫연립정부의두번째 총리 역임
- 1999 훈센의 지도로캄보디아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의 10번째 회원국
- 2015-현재 캄보디아 인민당(CPP)총재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 발휘

훈센 총리는 천주평화연합(UPF)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평화 포럼과 평화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해 왔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캄보디아는 2002년, 2012년, 202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Nations, ASEAN)의 장직을 맡고, 2021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 개최를 이끌어 아시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한 다자주의 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특히 메콩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좁히고, 평화로운 동남아시아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위원장 맡아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한학자 총재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제안한 ‘신통일한국 평화 체제’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 서밋’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동시 수교국 157개국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모여 지난 2021년 9월 출범한 국제기구로, 훈센 총리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지혜를 모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은 평생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문선명·한학자 총재의 뜻을 이어받은 고자 마련된 국제콘퍼런스로,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목숨을 걸고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주석과 평화 회담을 하는 등 평생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및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원

제6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일시
2025년 4월 11일

장소
대한민국 서울,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 볼룸

제6회 선학평화상 선정 경과

제6회 시상 방향

- 평화를 위한 혁신 Innovation for Peace -

제6회 선학평화상은 ‘평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주제 아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한 리더들의 도전과 성취를 조명합니다.

기후변화, 분쟁과 인도적 위기, 경제적 불평등, 빈곤 심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들은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접근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고방식의 전환’, ‘정책의 진화’, ‘협력 구조의 혁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혁신적 접근은 글로벌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행동, 국가와 경계를 초월한 협력, 그리고 세계 시민들에게 변화를 이끄는 영감을 주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제6회 선학평화상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성취를 이룬 리더들에게 주목했습니다.

후보자 접수

2024년 3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저명인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과 평화대사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105개국에서 총 1,13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후보자 심사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심사회의를 거쳐 추천된 각 후보자의 활동과 공적을 검토하고,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및 발표

선학평화상위원회는 최종 심사 회의를 통해 압축된 후보자 중 패트릭 아우아, 휴 에반스, 완지라 마타이를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상자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완지라 마타이

세계자원연구소,
아프리카 및 글로벌 파트너십 총괄 책임자

1971 케냐 출생
에모리 대학교 / 공중 보건학 석사
스미스 칼리지 / 생물학 학사

주요경력

2002-현재 그린벨트 운동, 의장 및 이사
2013-현재 Women Entrepreneurs in Renewables (wPOWER),
프로그램 리더
2015-현재 왕가리 마타이 재단, 공동 설립자
2019-현재 세계자원연구소, 아프리카 및 글로벌 파트너십 총괄 책임자
2022-현재 베조스 어스 펀드, 아프리카 최고 고문



아프리카 생태계 복원의 리더

그린벨트 운동을 이끌어 아프리카에 5,100만 그루 나무 심기

완지라 마타이는 아프리카 생태계 복원과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신해온 환경 운동가다. 그녀는 1977년 어머니인 왕가리 마타이가 설립한 그린벨트운동(Green Belt Movement, GBM)을 이어받아, 아프리카 전역에서 5,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린벨트운동은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산림 복원,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풀뿌리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운동은 나무 심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리더십의 기회를 제공했다.

2023년 기준, 그린벨트운동은 케냐를 넘어 아프리카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약 5,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이를 통해 수자원 보호, 토양 비옥도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과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

여성 창업가들의 재생에너지 투자 선고

완지라 마타이는 아프리카의 여성 창업가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녀는 ‘Women Entrepreneurs in Renewables(wPOWER)’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0명의 여성들에게 재생 가능 에너지 창업 교육을 제공하며, 그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완지라 마타이는 베조스 어스 펀드(Bezos Earth Fund)의 아프리카 고문으로 활동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1억 헥타르의 토지 복원 목표

완지라 마타이는 2019년부터 세계자원연구소(WRI) 아프리카 및 글로벌 파트너십 총괄 책임자로 활동 하며, ‘아프리카 산림경관복원 이니셔티브(AFR100)’를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억 헥타 르의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아프리카 31개국과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며, 소규모 농부들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과 산림 복원을 촉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이 프로젝트를 통해 3,000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복원되었으며, 이는 수자원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휴 에반스

글로벌시티즌 공동 설립자

1983 호주 출생
모나쉬 대학교 / 법학 및 정치학 학사
캠브리지 대학교 / 국제 관계학 석사
유타주립대학교 / 명예박사

주요경력

2003 오크트리 재단(Oaktree Foundation), 공동 설립자
2012 청년 글로벌 리더 선정, 세계경제포럼
2012 30세 이하 혁신가 30인 선정, 포브스
2014 창의적인 100인 선정, 패스트 컴퍼니
2008~현재 글로벌시티즌(Global Citizen), 공동 설립자 겸 CEO

436억 달러를 모금하며 글로벌 빈곤 퇴치에 기여

휴 에반스는 2008년 ‘글로벌시티즌(Global Citizen)’을 창립하여 극심한 빈곤 퇴치를 위한 세계적 노력을 주도해왔다. 글로벌시티즌은 세계은행과 주요 글로벌 기업 등으로부터 436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약속을 이끌어내며, 13억 명 이상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교육 기회 제공, 식량 안보 강화,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2018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만델라 100 캠페인’에서는 74억 달러의 재정을 확보해 1억 2,200만 명의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의료와 교육 혜택을 제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Global Goal: Unite for Our Future’ 캠페인을 통해 7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며, 백신 형평성과 치료제 공급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전 세계 시민의 힘을 결집해 글로벌 정책 변화를 리드

휴 에반스는 글로벌시티즌을 통해 전 세계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 약 1,2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이 플랫폼은 빈곤, 불평등, 기후 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4,290만 건의 행동을 조직하고, 이를 통해 30개의 글로벌 정책 변화를 실현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시티즌은 2018년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캠페인을 통해 23억 달러의 기금을 모금하여 7억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당시 약 26만 명의 글로벌시티즌 회원들은 온라인 서명, 소셜 미디어 캠페인, 이메일 등 약 2,500만 건에 달하는 행동으로 국제기구와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글로벌시티즌은 G7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UN 총회와 같은 국제 무대에서 각국 지도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약속을 촉구해왔다. 그 결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는 COVID-19 백신 형평성을 위해 15억 달러를 조성해 1억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글로벌시티즌의 독립적 보고 시스템은 이러한 약속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단순한 자선 활동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 힘으로 정책 변화와 사회적 진전을 실현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와 집단 행동의 융합: 음악이 만들어낸 세계적 변화

휴 에반스는 음악과 시민 행동을 결합해 대규모 시민 참여를 이끄는 독창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2012년 시작된 ‘글로벌시티즌 페스티벌(Global Citizen Festival)’은 비욘세, 리한나, BTS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며, 관객들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서명 운동, 메시지 캠페인과 같은 실질적 행동으로 글로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One World: Together at Home’이라는 온라인 페스티벌을 기획해 전 세계적 연대를 강화했다. 이 행사는 175개국에서 방영되었으며, 레이디 가가, 레이디 아폴라, 스티비 원더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1억 2,79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 해당 기금은 필수 의료 근로자 지원과 COVID-19 대응에 사용되었다.

음악이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활용한 그의 혁신적 접근은 시민 행동의 저변을 넓히고, 대규모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년 세대를 이끄는 글로벌 시민 혁신가

패트릭 아우아

아시시 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1965 가나 출생

스와스모어 대학교 공학 및 경제 학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하스 경영 대학원 석사

스와스모어 대학교 명예 박사

워털루 대학교, 밥슨 칼리지, 코네티컷 칼리지, 토론토 대학교 명예 박사

주요경력

1989-1997 마이크로소프트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2007 젊은 글로벌 리더 선정, 세계경제포럼

2013 폴 해리스 펠로우 선정, 국제 로타리 재단

2016 혁신가 선정, Quartz Africa

2002-현재 아시시 대학교, 설립자 겸 총장



아프리카의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가

아프리카의 미래를 이끌 최첨단 IT 인재 양성

패트릭 아우아는 2002년 가나에 아시시 대학교를 설립하며, 아프리카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을 도입해,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개교 당시 30명으로 시작한 아시시 대학교는 현재 31개국에서 온 약 1,5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윤리적 리더십과 첨단 IT 기술을 함양한 수천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아프리카 미래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아시시 대학교 졸업생의 90%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거나 창업에 성공하며, 아프리카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2019년에 설립된 '아시시 벤처 인큐베이터'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금까지 3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탄생시켰다. 이들 기업은 현재까지 1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아프리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시는 설립 20년 만에 가나 1위, 아프리카 9위, 세계 상위 400위 대학으로 성장하며 (2020 글로벌 타임즈 고등교육 영향력 평가), 아프리카 고등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접근성과 성평등 증진

패트릭 아우아는 아프리카 청년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현재 아시시 대학교 학생의 55%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그의 노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개교 당시 25%에 불과했던 여성 학생 비율은 현재 50%로 증가했으며, 아시시는 STEM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 학생들은 컴퓨터 과학, 공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시시 출신 레지나 카누는 BBC가 선정한 '가장 영감을 주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리며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컴퓨터 과학을 전파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프리카의 만성 부패를 해결한 윤리적 리더 양성

패트릭 아우아는 아프리카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에 집중해왔다. 그는 윤리, 협업, 기업가 정신을 핵심으로 한 4년간의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윤리적 책임감을 배양하고 사회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시시는 아프리카 최초로 '명예 규율(Honor Code)'을 도입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르고 부정행위를 감시·보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윤리적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 성취를 넘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패트릭 아우아의 노력은 단순한 교육 영역을 넘어,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윤리적 리더십의 기반을 구축하며,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궂럭 에벨레 아지키웨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1957. 11. 20. 나이지리아 출생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대학교 동물학 수생태학 석사
나이지리아 포트하커트 대학교 동물학 어류생물학 박사

주요 경력

- 2005-2007 바예사 주지사
- 2007-2010 나이지리아 부통령
- 2010-2015 나이지리아 대통령
- 2019-현재 세계평화정상연합 아프리카대륙 의장
- 2020-현재 코피 아난 선거 및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위원회 위원
- 2020-2022 말리 중재를 위한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특사
- 2021-현재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OWAS) 원로회의 의장



민주주의로 세계 평화를 이끄는 리더

“평화는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 궂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ISCP 회의 —

궂럭 조나단 전 대통령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나이지리아를 이끌었으며, 임기 동안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루어낸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퇴임 후에도 아프리카연합(AU)과 세계평화정상연합(ISCP,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의 중재자로 활동하며, 서아프리카 및 사헬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평화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평화 활동

서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강화

가나, 말리, 기니 등에서 정치적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활동, 대화 촉진 및 정치적 갈등 해결에 기여하였다.

평화 선거 모니터링 및 극단주의 대응

나이지리아, 케냐, 시에라리온 등에서 민주적 선거 절차를 감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정치 체제 구축에 기여하였다. 그는 보코하람과 같은 극단주의 조직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 지역 안보 및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평화증진을 위한 기여

서아프리카의 평화협력을 넘어 아프리카와 전 세계평화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였다. 그는 세계평화정상연합(ISCP, International Summit Council for Peace)의 핵심 지도자로서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평화 구축을 실천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한학자 총재의 평화 비전과 맞닿아 있으며, 기존 외교 체계를 넘어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행동하는 새로운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사무엘 하데베

하나님게시교회 선지자

1977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생
미국 뉴버그 신학대학원 철학 박사

주요경력

- 2009-현재 계시 영적의 집(TRSH) 설립자 겸 고위 영적 지도자
- 2009-현재 설립자, Trillion Cart Investments (TC)
- 2013-현재 설립자, Dr. S.B. Radebe 재단
- 2018 조정자, 초종교 평화 축복식, 남아프리카공화국
- 2021-현재 영적 고문, 아마홀루비 왕국
- 2023 아프리카 코디네이터, 아프리카 종교·영성 자유 포럼(AFRSL)
- 2023-현재 회장, 평화와 발전을 위한 종교 간 협회, 아프리카 지부



종교를 넘어 영적 화합을 이루는 리더

“현재 가정의 파괴, 영성의 상실 등 전 세계가 영적 도전과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직자인 우리의 사명은 초종교적으로 화합을 이루어 영적 쇄신을 통해
신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WCLC의 사명입니다.”

— 사무엘 하데베, 세계성직자협의회(WCLC) 창립대회 —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Prophet Samuel Radebe)는 아프리카의 전통적 영성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며, 신앙의 근본적 영성회복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그는 세계성직자협의회(WCLC) 아프리카 지역 대표 중 한 명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이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화 활동

영성 운동을 통한 아프리카의 종교 화합 강화

기독교 및 전통 영성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앙 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 리더십 및 평화 교육 확대

젊은 세대가 순수한 영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래 지도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국제적 종교 연대 구축

한학자 총재의 WCLC 비전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국제 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는 신앙을 기반으로 종교 간 연대와 평화 구축을 실현하며, 아프리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신앙을 통한 화합과 협력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

선학평화상 시상식

THE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IES
PRIZE

2015-2025, 대한민국



선학평화상 시상식

THE SUNHAK PEACE PRIZE AWARD CEREMONIES

2015-2025, 대한민국



선학평화상 연혁

2013.2.20	한학자 총재, 선학평화상 제정 발의	2020.2.5	제4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마키 살, 무늬 A. 유난 / 설립자특별상 수상자 : 반기문)
2014.8.11	선학평화상 위원회 출범식	2022.2.7	제5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2015.6.8	제1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2022.2.12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 사라 길버트, 세계백신면역연합 / 설립자특별상 수상자 : 훈센)
2015.8.28	제1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아노테 통, 모다두구 곽타)		
2015.11.23~25	인도·네팔 선학평화상 이니셔티브	2025.1.15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2016.11.29	제2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2025.4.11	제6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 패트릭 아우아, 휴 에반스, 완지라 마타이 / 설립자특별상 수상자 : 굿럭 조나단, 사무엘 하데베)
2017.2.3	제2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지노 스트라다, 사키나 야쿠비)		
2018.11.22	제3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2019.2.9	제3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수상자: 아킨우미 아테시나, 와리스 디리)		
2019.10.5	제4회 선학평화상 수상자 발표		

후보자 추천

후보자 자격 기준

- 선학평화상의 평화의 가치를 구체화한 활동에 현격하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 복수의 국가, 인종, 종교, 이념에 걸쳐 평화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개인 또는 단체
- 개인의 경우, 추천 당시 생존 인물

제출 서류

후보자 추천서(소정양식) / 1부
*다운로드 : <http://sunhakpeaceprize.org>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
* 제출된 모든 자료는 **영어로 작성**해야합니다.

추천서 접수

선학평화상 사무국
(041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도원빌딩 8층

Email : sunhakpeaceprize@gmail.com
Website : <http://sunhakpeaceprize.org>
Tel : +82)2-3278-5158
Fax : +82)2-3278-5198

선학평화상 기타 프로젝트 소개

1. 세계시민의식교육 : 런&액트

교육은 세계 평화를 앞당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정한 아하 순간의 느낌(a genuine aha-moment)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런&액트’는 미래세대들이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 대해 배우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도록 설계된 세계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런&액트’는 중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계 평화 문제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설계된 60분 분량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유엔과 다른 국제 기구들의 최근 통계정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7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제공됩니다.

방문주소 : http://sunhakpeaceprize.org/en/learn/learn_act.php

2. 평화 모션그래픽 공모전

‘평화 모션그래픽 공모전’은 이 시대의 중요한 글로벌 평화 이슈들을 흥미로운 모션그래픽으로 담아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지난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이 시대, 우리는 모션그래픽 콘텐츠가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 :

2020 ‘선학평화상 평화기치: 인권존중’

2021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

2022 ‘지속가능한 생활’

3. 글로벌 인턴십

선학평화상재단 사무국에서는 글로벌 피스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글로벌 평화 이슈에 관심이 많고, 국제적 감각을 키우며 다양한 NGO 운영의 실무경험을 쌓고자 하는 전 세계 청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부모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현세대는 앞으로 올 세대의 평화를 위한 도덕적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